

만남

2022년 12월
통권 214호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그리고 평화를 빕니다



<2022년 10월 29일 레지오 연차총친목회>

함부르크 한인 천주교회

Katholische Koreanische Mission in Hamburg

<http://mannam.cathms.kr>

문학과 신앙	-----	3
신앙생활 나눔 / 김진호 프란치스코	-----	5
소공동체 모임 자료	-----	6
대림시기의 뜻과 유래	-----	9
영적 상담	-----	12
성경 속의 사람들	-----	14
축일을 축하합니다	-----	17
본당 전례, 본당 살림살이	-----	18
공동체 소식	-----	19
활동단체 모임 안내	-----	20
월 중 행사표	-----	21
함부르크 한인천주교회, 월보 만남지 안내	-----	22
미사안내	-----	23

《교황님의 12월 기도지향》

❖ 비영리 자원봉사 기관들을 위하여

인간 발전에 헌신하는 비영리 자원봉사 기관들이 공동선에 헌신하고자 하는 이들을 찾고 국제적 차원에서 새로운 협력의 길을 끊임없이 모색하도록 기도합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 도마야, 나는 아직 너를 도마라고 부른다-김훈의 『하얼빈』

(김은정 엘리사벳 교수)

『하얼빈』은 김훈 작가의 가장 최근 작품이며, 문재인 대통령이 추천한 작품이라는 이유로 화제가 되기도 했던 작품이다. 금방 짐작되듯이 『하얼빈』은 이토 히로부미를 저격한 안중근의 이야기이다. 이 작품은 ‘위인’ 안중근이 아니라 ‘인간’ 안중근에 초점을 맞추어 먼 하얼빈으로 떠날 수밖에 없었던 서툰한 살 청년의 갈등, 두려움, 신념을 다룬다.

안중근은 ‘도마’라는 이름으로 세례를 받은 뿌리 깊은 가톨릭 집안의 장남이었다. 그가 믿고 의지하는 빌렘 신부는 안중근에게 세례를 준 인물이다. 그는 안중근의 내면에 귀를 기울이면서도 그 스스로 종교적 교리와의 관계에서 고민을 거듭한다.

안중근은 동양 평화를 위해 반드시 이토를 죽여야 한다고 생각했고, 자신에게 그러한 일을 행할 수 있게 해 준 하느님께 감사의 기도를 드렸다. 거사 후 헌병에 체포되었을 때 그가 가장 먼저 한 일도 성호를 긋는 것이었다. 부활절 전에 사형 집행이 이루어져 부활의 은총을 받을 수 있기를 간구하는 그는 여전히 신앙인이었다.

그러나 안중근은 ‘살인’을 저지른 죄인이기도 했다. 그가 행한 일은 ‘살인하지 말라’는 계명을 어긴 것이었기 때문에 가톨릭 교구에서는 안중근을 거부했다. 빌렘 신부는 그런 교구의 명령을 어기고 안중근을 찾아간다.

도마야, 나는 아직 너를 도마라고 부른다. 네가 그런 말을 나에게 하고 싶은 마음을 나는 안다. 그러나 그것이 네 마음의 전부는 아닐 것이다. 네가 너의 영혼을 나에게 의지하고 싶다면서 나를 불렀을 때의 너의 마음을 나는 또한 안다. 그러니 너는 너의 마음을 깊이 들여다보아라. 우선 너의 마음에 기도해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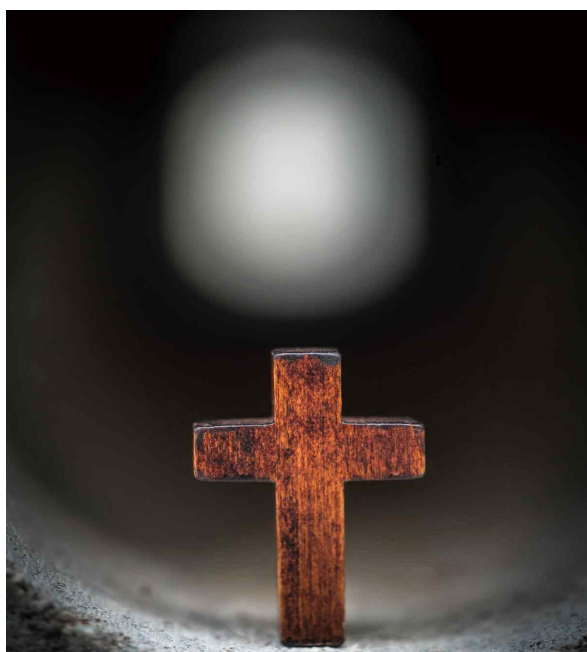
교회 밖의 일은 은총의 손길에서 벗어나 있는 것일까. 안중근이 유복한 삶을 버리고 ‘죄’의 길로 들어선 것은 고통받는 수많은 인간의 삶을 사랑하고 아파했기 때문일 것이다. 그러면서 또 신앙인이기에 자신의 행위에 대한 고뇌도 없을 수 없었다. 신부는 그에게 마지막 고해성사를 준다.

안중근이 몸을 앞으로 굽히고 낮은 목소리로 말했다. 빌렘이 몸을

앞으로 굽히고 들었다. 안중근의 목소리는 점점 작아졌다. 사형수의 머리와 사제의 머리가 가까워졌다. 안중근의 목소리는 숨소리처럼 들렸다. 옥리들은 아무 소리도 듣지 못했다. 목소리가 끊기고, 침묵이 길게 이어졌다. 빌렘은 침묵 속에서 안중근에게 고해성사를 베풀었다.

안중근은 누구보다 평화롭게 ‘도마 안중근’으로 죽음을 맞이할 수 있었다. 그 스스로 신앙이 있었고 자신의 영혼을 위로해 주는 빌렘 신부가 있었기 때문이다. 한 치의 망설임도 없었던 행동, 행한 이후 단 한 번의 후회도 없었던 청년 안중근. 이 청년 안중근을 도마 안중근으로 죽을 수 있게 해 준 그 힘처럼 이 교회 밖의 신앙에도 따뜻한 눈길을 보내는 것이 바로 오늘날 교회가 해야 할 일일지 모른다.

■ 한국천주교회에서 ‘살인하지 말라’는 계명을 어긴 죄인으로 남아 있던 도마 안중근의 명예 회복이 이루어진 것은 그의 죽음 이후 80년이 지난 후다. 2000년 한국천주교회는 안중근의 행위는 ‘국권회복을 위한 전쟁 수행으로서 타당하다고 보아야 한다’는 공식적 입장을 밝히며 안중근을 받아들였다.



♥ 어쩌다가 (김진호 프란치스코)

어쩌다가보니 주위에 나무들은 저마다 다른 색깔로 옷을 갈아입고 있는 가 했더니, 추워오는 날씨에도 불구하고 별거숭이가 되어있는 나무들의 모습을 바라보면서 많은 것들을 생각하게 한다. 맨 먼저 생각나는 것은 빠르게 흘러가버린 세월이었다. 또 한해가 이렇게 지나가고 있다는 것에 아쉬움을 남기게 한다.

나는 매일 아침 일곱 시가 되면 “할아버지 약 드세요!” 하고 손자손녀들이 요란하게 외치는 알람소리에 잠에서 깨어 두 팔을 쳐 올리며 조심스럽게 일어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하고 성호경을 그으며 오늘의 삶을 주신 하느님께 감사하며 항상 아내가 준비해 놓은 식탁 위에 약을 찾아 복용하면서 하루가 시작된다. 약을 먹고 나서 내가 해야 할 일은 아침식사를 준비하는 것이다. 몇 년 전부터인가 나는 아침식사 당번이 되었기에 주방에 들어가 커피를 내리고 빵을 굽고 버터를 바르며 식사 준비를 한다. 이렇게 준비를 끝내놓고 특별한 일이 없는 날에는 핸드폰을 열어 조용히 뉴스를 들으며 아내가 오기를 기다린다. 이렇게 우린 매일같이 함께 살고 있으면서도 아침에 만나는 순간이 기다려지고 만나면 늘 반갑다. 이렇게 우리는 주위에 사람들처럼 평범한 하루를 만나고 보내고 있다. 내가 만나고 보낸 세월을 되돌아보려니 빠르게 흘러가 버린 세월이 원망스럽기에 아쉬움이 나를 서글프게 또 혼란하게 만든다. 내가 아무리 아쉬워하고 원망해도 세월이란 놈은 인정사정없이 빠르게 아니 쏘살같이 달려와 다사다난했던 한해를 쫓아 보내고 새해를 맞이하려고 준비하고 있다.

그래도 지금까지 내가 살아오면서 제일 잘 한일이 있었다면 그것은 바로 신앙생활을 할 수 있도록 불러주신 하느님의 자비와 큰 축복이었다고 자랑하고 싶다. 어쩔 나눈 구원받을 수 없이 잘못된 삶을 살아온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신앙 안에서 오늘까지 잘 견디며 살아올 수 있었기에 감사하고 싶다. 그래도 꼭 짚어 감사하고 싶은 것이 있다면 나는 신앙생활을 통하여 어떠한 고통 속에서도 잘 견디어 낼 수 있는 힘과 용기를 그리고 매사에 감사할 수 있는 삶의 지혜를 주신 하느님께 특별히 3번의 죽음 앞에서도 구사일생으로 살아날 수 있었던 하느님의 사랑과 은총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한 해를 보내고 또 새해를 맞이할 수 있는 삶을 허락하신 하느님께 감사하고 싶다.

회개하여라. 하늘 나라가 가까이 왔다 (마태 3,1-12)

▶ 지난달에 정한 성구에 대한 생활 나눔을 잠시 하겠습니다.

시작성가

진행자 가톨릭 성가 91장 “구세주 빨리 오사” 1절과 2절을 노래하겠습니다.
(또는 전례시기에 맞는 성가를 선택합니다)



주님 초대하기

진행자 주님을 이 자리에 초대해 주십시오.
(초대기도가 힘들 때, 아래의 기도를 할 수도 있습니다)

- ❖ 주님! 저희에게 진리의 영을 내려주소서.
- ❖ 저희를 이끌어주시는 성령님! 당신 안에 머무르게 하소서.

하느님 말씀

진행자 한 분이 마태오복음 3장 1절에서 12절까지의 말씀을 읽어 주십시오.

- 3 1 그 무렵 세례자 요한이 나타나 유다 광야에서 이렇게 선포하였다.
- 2 “회개하여라. 하늘 나라가 가까이 왔다.”
- 3 요한은 이사야 예언자가 말한 바로 그 사람이다. 이사야는 이렇게 말하였다. “광야에서 외치는 이의 소리. ‘너희는 주님의 길을 마련하여라. 그분의 길을 곧게 내어라.’”
- 4 요한은 낙타털로 된 옷을 입고 허리에 가죽 띠를 둘렀다. 그의 음식은 메뚜기와 들 꿀이었다.
- 5 그때에 예루살렘과 온 유다와 요르단 부근 지방의 모든 사람이 그에게 나아가,
- 6 자기 죄를 고백하며 요르단 강에서 그에게 세례를 받았다.
- 7 그러나 요한은 많은 바리사이와 사두가이가 자기에게 세례를 받으러 오는 것을 보고, 그들에게 말하였다. “독사의 자식들아, 다가오는 진노를 피하라고 누가 너희에게 일러 주더냐?
- 8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어라.
- 9 그리고 ‘우리는 아브라함을 조상으로 모시고 있다.’고 말할 생각일랑 하지

마라. 내가 너희에게 말하는데, 하느님께서서는 이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녀들을 만드실 수 있다.

10 도끼가 이미 나무뿌리에 닿아 있다. 좋은 열매를 맺지 않는 나무는 모두 찍혀서 불 속에 던져진다.

11 나는 너희를 회개시키려고 물로 세례를 준다. 그러나 내 뒤에 오시는 분은 나보다 더 큰 능력을 지니신 분이시다. 나는 그분의 신발을 들고 다닐 자격조차 없다. 그분께서는 너희에게 성령과 불로 세례를 주실 것이다.

12 또 손에 열쇠를 드시고 당신의 타작마당을 깨끗이 하시어, 알곡은 곳간에 모아들이시고 쭉정이는 꺼지지 않는 불에 태워 버리실 것이다.”

진행자 다른 분이 다시 한 번 천천히 읽어 주십시오.

진행자 성경 구절이나 단어를 3번씩 기도하듯이 외쳐주십시오.

진행자 3분 동안 침묵하며 주님께서 각자 마음 안에 들려주시는 말씀을 들읍시다.

진행자 성경 말씀이 자신에게 어떻게 다가왔는지 나누어 봅시다.

☞ 판공성사를 앞두고 한 해를 되돌아보면서 자신의 부족함을 하느님께 고백할 수 있는 성찰의 시간을 갖도록 합시다.

한걸음 더 나아가기

진행자 모두 함께 읽겠습니다.

(또는 어느 분이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복음은 당시에 “예루살렘과 온 유다와 요르단 부근 지방의 모든 사람이 그에게 나아가, 자기 죄를 고백하며 요르단 강에서 그에게 세례를 받았다”고 증언합니다. 물론 그 중에는 당대에 의인으로 자처하는 바리사이와 사두가이들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런 사람들에게도 세례자 요한은 한층 더 목소리를 높여서 외칩니다.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어라.”

하느님 나라를 향한 내적 쇄신으로써의 회개, 이것은 그리스도의 길을 걸으려는 모든 사람들이 항상 나아가야 할 보편적이고 시대를 초월한 하느님의 요청입니다. 빈말만 앞세우고 진정으로 변화되기를 주저하는 신앙,

의례적이고 형식적인 전례 생활로 모든 의무를 다했다고 자신을 합리화시키는 신앙인들에게, 바리사이와 사두가이들을 향해 꾸짖은 세례자 요한의 책망은 귀담아 들어야 할 내용입니다.

생명의 말씀 정하기

진행자 한 달간 우리가 마음에 간직하고 살아갈 생명의 말씀을 정하겠습니다. 어떤 성구말씀이 좋겠습니까?

기타토의

진행자 이번 달에 우리 소공동체가 ‘생명의 말씀’을 살기 위해 실천할 사항들을 함께 의논해 봅시다.

★ (실천사항 논의 후) 공지사항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마침기도

진행자 마음에서 우러나는 대로 자유롭게 기도해 주십시오.

마침성가

진행자 가톨릭 성가 92장 “구세주 내 주 천주여” 1절과 2절을 노래하겠습니다.
(또는 전례시기에 맞는 성가를 선택합니다)



대림시기의 뜻과 유래

1. 교회에서 새해는 1월 1일이 아니라가요?

벌써 11월의 마지막 주, 달력 한 장만 넘기면 2022년이 끝이 나요. 올해를 떠나보내는 슬픔도 잠깐! 교회에서는 벌써 새해가 시작됐다는 거 아시나요? 일반적으로 우리는 1월을 한 해의 시작으로 지내고 있지만, 교회 달력은 다르답니다. 교회에서는 아기 예수님의 탄생 ‘성탄’을 기다리는 대림 시기를 한 해의 시작으로 삼고 있어요. 성탄이 잘 알다시피 12월 25일이니까 그 이전 4주간을 대림으로 지낸답니다. 올해 대림 1주일은 11월 27일로 교회 달력에서는 그 날이 새해 첫날이지요.

2. 대림 시기란 무엇인가요.

대림(待臨)은 ‘오기를 기다린다’는 의미로, 영어로는 ‘Advent’라고 하는데 ‘도착’을 뜻하는 라틴어 ‘Adventus’(아드벤투스)에서 유래했어요. 말뜻처럼 대림 시기는 하느님의 아들이 세상에 오신 것을 기억하는 ‘주님 성탄 대축일’을 준비하고 동시에 세상 마지막 날에 다시 오실 그리스도를 기다리는 시기랍니다. 중요한 손님이 집에 오실 때 우리는 집을 깨끗이 치우고 여러 가지 준비를 해야 하듯이 우리는 예수님 오심을 기다리면서 몸과 마음을 깨끗이 하고 하는 시간을 가져야 해요.

3. 언제부터 대림 시기를 보내기 시작했나요.

대림절은 6세기 중엽 스페인 교회에서 성탄을 기다리며 5주일을 지낸 적이 있으나 본격적으로는 그레고리오 교황 1세(재위 590~604년)에 의해 최초로 대림절 설교가 시작됐어요. 특히 프랑스는 투르의 주교 페르페투오에 의해 성 마르티노 축일(11월 11일)로부터 성탄 전까지 매주 3일씩을 축일로 정해 지냈어요. 그러나 명칭은 지금처럼 대림절이 아니라 ‘성 마르티노 40일’이라고 불렀답니다. 오늘날과 같은 대림을 지키게 된 것은 이 축일이 유럽으로 퍼져 나가면서부터 시작됐어요. 당시 교회는 속죄의 성격보다 성탄 준비를 위한 축제로 지내도록 했답니다.

4. 대림 시기 전례에는 어떤 특별한 점이 있나요.

대림절은 사순절과 같이 엄숙하게 지켜지기는 하지만 사순절보다는 덜 엄격하며 서방 교회에서는 이제는 단식하지 않아요. 축제를 여는 관습도 지양되고 있어요.

대림 시기에는 미사 중에 ‘하늘 높은 곳에는 하느님께 영광’이라는 문구로 시작되는 대영광송을 생략해요. 이는 대림 시기의 근엄한 성격을 나타내는데 성탄뿐 아니라 그리스도의 재림을 준비하는 때이기 때문이에요. 하느님의 영광을 온 세상에 보여 주러 오실 아기 예수를 기다리는 시기이기 때문이지요. 성탄 미사 때부터 대영광송을 다시 불러요.

또 이 시기에 사제는 보라색 제의를 입어요. 보라색은 회개와 보속을 의미하는 색깔이에요. 회개란 우리가 잘못했을 때 뉘우치고 다시 죄를 짓지 않겠다는 결심을 하는 것이고, 보속은 우리의 잘못을 반성하며 착한 일을 하는 거예요. 대림 제3주일이 되면 기쁨을 나타내는 장미색 제의를 입어요. 이는 주님께서 오실 날이 머지않았음을 기뻐하기 위해서입니다.

5. 네 개의 대림 초는 어떤 의미가 있나요.

대림초는 보라, 연보라, 연분홍, 하양 등 네 가지 초로 이뤄져 있어요. 대림 1주에는 보라색 초, 대림 2주에는 연보라색 초, 대림 3주에는 연분홍색 초, 대림 4주에는 하얀색 초에 불을 켜요. 대림초에 불이 들어오는 것을 보며 성탄이 다가오고 있다는 것을 알게 돼요.

우리는 네 가지 초 중에 가장 어두운 색인 보라색 초부터 먼저 켜서 점점 밝은색을 밝혀가는데 이것은 아기 예수님께서 빛으로 오시어 세상을 더 밝게 비춰줄 날이 가까워져 오는 것을 의미합니다.

6. 왜 대림 시기는 4주간인가요

대림 시기의 4주는 이스라엘 백성이 메시아를 기다렸던 구약의 4000년을 뜻해요. 매주 대림 시기의 전례적 의미와 기다림의 자세도 조금씩 다르답니다. 복음을 보면 1주는 주님을 향한 기다림으로 ‘깨어 있을 것’을, 2주는 ‘회개’를, 3주는 구세주 오실 날이 가까웠으니 ‘기뻐하라’를, 마지막 4주는 ‘예수님 탄생 예고’와 ‘그분이 누구인지’를 말하고 있답니다.

7. 대림 시기를 맞아 우리는 어떻게 회개할 수 있을까요.

교회에서는 대림, 성탄, 부활 등 중요한 시기에 회개할 것을 강조하고 있어요. ‘회개’란 ‘길을 바꾸다’, ‘돌아서다’라는 히브리어에서 시작된 말로 생활을 개선해 삶의 방향을 하느님께로 바꾼다는 의미입니다. 회개를 위해 우리는 스스로 하느님의 모상대로 창조됐음을 잊지 않고 하느님 뜻을 실천하고 살아가야 해요. 마음속 욕심과 이기심을 없애고 우리 생활 속에서 잘못을 끊을 수 있도록 실천해야 해요.



질문

Q. 신앙생활을 한 지 10년이 넘으니까 본당 신자들의 잘못된 모습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왜 저렇게 살까, 나 같으면 안 그럴 텐데'하는 생각에 혀를 찰 때가 많습니다. 신자들과 모여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다보면 아무래도 마음이나 수준이 맞는 사람들과 대화를 나누는 것이 좋습니다. 신자들의 잘못된 생활을 고쳐주고 싶은데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답변 - 홍성남 신부님(가톨릭 영성 심리 상담소 소장)

A. 형제님의 열심한 마음은 공감이 갑니다. 그러나 그런 생각은 여러 가지 병적 요소를 갖고 있음을 알아야 합니다. 적어도 '세상이, 성당 사람들이 왜 저 모양일까. 나라면 이렇게 할 텐데'하는 생각은 자신과 연관 지어 다른 사람 마음을 읽는 악습에서 비롯된 것입니다. 자신의 눈에 보이는 것들을 판단하면서 생긴 이런 생각은 얼핏 절대적이고 객관적으로 여겨집니다.

그러나 한 꺼풀 벗겨놓고 보면 그 안에는 '세상 사람들은 다 내 마음에 들게 행동해야 해'하는 유치하면서도 탐욕스러운 욕구가 숨어있습니다. 세상에 내 마음과 같은 사람이 존재할까요? 만약 모든 사람이 다 내 마음 같다면 어떤 일이 생길까요. 틀림없이 내가 무엇을 잘못하는지 알지 못하고, 내가 누구인지 알지도 못한 채 살아가야 합니다.

왜냐하면 사람은 나와 다른 사람을 통해 자신을 알아가는 독특한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나와 생각이 다른 사람을 보더라도 내 방식을 강요하지 말고 인정해주고, 받아주면서 살아가려고 해야 '나'라는 존재가 살아납니다.

그럼 왜 다른 사람이 내 마음 같기를 바라는 것일까요. 세상의 모든 일은 실로 다양한 원인과 이유가 거미줄처럼 엮여 발생합니다. 그런데 사람은 본성적으로 그 가운데 자신에게 가장 유리하다 싶은 이유만을 둘러대려고 합니다. 그래서 내 마음에 들지 않는 사람을 보면 '왜 저럴까. 나 같으면 안 그럴 텐데'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자기중심적인 삶은 신경증적 문제를 유발합니다. 자기도취에 빠져 허우적거리거나 자기 마음대로 안 된다고 짜증내는 삶을 산다는 것입니다. 이런 병적 삶의 틀에서 벗어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우선 우리 삶에는 정답이 없다는 사실을 받아들여야 합니다. 삶은 결과에 대한 설명만 존재할 뿐 정답이 없다는 것을 받아들여야 유아적 발상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또 인생은 모든 맛이 다 포함된 것이란 사실을 받아들여야 합니다. 대개 자기 마음대로 되기를 바라는 사람은 '인생은 단맛만 존재해야 해'하며 세상을 이분법적으로 보는 유아적 사고방식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쓰면 뻘고 달면 삼키는 미숙한 행동을 거듭하면서 철없는 어린 아닌 어른으로 살아갑니다.

이런 사람은 자신의 신념에 반하는 주장을 접하면 금세 위기의식을 느끼고 공격적 태도로 돌변합니다. 심지어 자명한 악을 선이라고 우겨서 사람들로 하여금 가치관 혼란을 겪게 합니다.

이러한 분은 진정한 의미의 '회심체험'을 해야 합니다. 회심체험이란 신적 실재와의 만남을 말합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신의 존재를 체험하는 것입니다.

회심체험을 하게 되면 우선 영적으로 고양됩니다. 그래서 과거처럼 저급한 생각이나 충동에 사로잡히지 않고 자신의 길을 갈 수 있습니다. 아울러 지극히 협소했던 자아의 틀이 깨지면서 자유와 용기를 느끼게 됩니다. 또한 정서의 중심이 분노와 짜증이 아닌 사랑과 조화와 긍정적 감정으로 바뀝니다. 그래서 사람을 사랑하는 것이 어렵게 느껴지지 않고, 조건적 만남이 아닌 공감적 만남을 갖게 됩니다. 이처럼 인격적 에너지가 마음 안에 존재하는 사람들, 회심체험을 한 사람들은 육적 자아 속에 갇혀있던 과거와는 완전히 다른 삶을 살게 됩니다.

신앙인의 삶을 영적 삶과 육적 삶, 두 가지로 분류하기도 합니다. 육적 삶은 형제님처럼 자기 마음은 보지 않고, 다른 사람들 허물만 찾아 들춰내는 삶입니다. 이런 삶은 아무리 그 논리가 정당하다 해도 하느님을 중심으로 하는 영적 삶이 아니기에 자신이나 다른 사람에게 기쁨을 줄 수 없습니다. 자칫 공동체 분열의 원인이 될 수 있으니 진정한 자기 성찰을 해야 합니다.



♥ 성경 속의 사람들 - 다윗 2 (이용권 안드레아 신부님)

신화와 전설 속의 영웅들은 단 한 번의 도약으로 놀라운 지위를 얻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 역경을 딛고, 수많은 싸움을 거쳐야 비로소 자신에게 주어진 임무를 깨닫게 되고 모든 이들이 우러러보는 자리를 얻게 됩니다. 다윗도 그러했습니다. 골리앗과의 싸움에서 승리함으로써 명성을 얻기 시작했지만, 그것이 그대로 임금의 자리로 이어지지는 않았습니다. 임금 사울의 시기와 암살의 위협을 시작으로 홀로 굳건히 설 수 있을 때까지 여러 위험을 뛰어넘어야 했습니다.

다윗이 골리앗을 물리친 사건(1사무 17장)은 다윗이라는 인물을 알리는 효과를 가져왔습니다. “사울은 수천을 치시고, 다윗은 수만을 치셨다네!”(18,7; 21,12; 29,5) 백성들의 찬사는 곧장 사울의 시기를 불러왔습니다(18,6-9). 사울은 처음에는 다윗을 사적으로 은밀하게 죽이려 합니다. 돌만 있을 때 다윗에게 창을 던지거나(18,10-12; 19,9-10), 전쟁터의 맨 앞에 나가게 하여 적의 손에 죽임을 당하게 하려 합니다(18,17-29; 2사무 11장에서 다윗이 밧 세바의 남편 우리야에게 했던 방식입니다). 그러나 이 모든 시도는 실패로 돌아가고 다윗은 더 많은 승리를 거두며 성장합니다.

사울은 이제 공개적으로 그를 죽이겠다고 선언합니다(1사무 19,1). 사울의 전령들이 다윗의 집 앞에서 그를 체포하려 했지만, 다윗은 아내 미갈의 재치로 달아나 목숨을 건집니다(19,11-17). 다윗이 사무엘에게로 달아났다는 것을 안 사울이 그를 잡으려 전령들을 세 번이나 보내고 자신이 직접 나서기까지 하지만 하느님의 영에 사로잡혀 황홀경에 빠져드는 바람에 다윗을 쫓지 못합니다. 사울은 도망자 다윗을 도왔다는 이유로 놈의 사제들과 주민들을 학살하며 다윗을 죽이려고 하는 자신의 의지를 확고하게 드러냅니다(21,1-10; 11,6-23). 다윗은 결국 필리스티아로 달아납니다(19,18-24; 21,11-16). 이민족의 세력권 안으로 달아난 다윗은 이제 자신을 따르는 이들과 함께 무리를 형성하고 점차 힘을 키워 나갑니다(22,1-5).

그래도 다윗의 목숨을 노리는 사울의 추적은 집요하게 이어집니다. 숨바꼭질 같은 추격전이 벌어지고 다윗과 그의 부하들은 사울에게 포위되어 거의 잡힐 뻔했습니다(23,14-15. 19-28). 그러나 주님은 이를 허락하지 않으십니다(23,14).

그런데 ‘갈림 바위’에서 사울이 다윗의 추적을 포기해야 한 사건 이후로 둘의 자리는 역전됩니다. 이제 다윗이 사울의 목숨을 위협하게 됩니다. 성경은 이것을 ‘다윗이 사울의 목숨을 살려주다.’라는 소제목을 달고 1사무 24장과 26장 두 번에 걸쳐 전해주고 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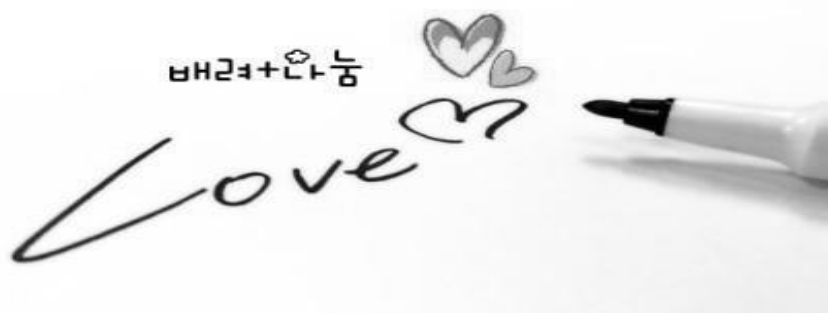
1사무 24장의 이야기는 다윗 일행이 숨어든 동굴 안으로 사울이 들어서는 장면으로 시작합니다. 다리를 쪼그리고 앉아 급한 일을 처리하고 있는 사울의 등 뒤, 어두운 곳에 다윗과 그 부하들이 숨어 있었습니다. 부하들이 말합니다. ‘지금이 바로 저 원수를 칠 기회다. 이는 주님의 뜻이다.’ 그러나 다윗은 거부합니다. ‘주님께서서는 주님의 기름 부음 받은 이(meshiah 임금을 가리키는 말)에게 손을 대는 것을 허락하지 않으신다.’며 사울의 옷자락만을 몰래 자릅니다. 무슨 일이 벌어졌는지 모르는 사울이 길을 나서자 다윗이 쫓아나와 자신의 억울함을 호소합니다. ‘왜 다른 이들의 소리에 끌려가느냐? 오해다. 나는 이렇게 당신을 해칠 수 있었음에도 아무런 일도 벌이지 않았다.’ 결백을 주장하는 그는 ‘주님의 판단’(24,13.16)에 자신을 내맡깁니다. 사울은 ‘네가 나보다 의로운 사람이다.’(18절)라며 다윗을 치켜세우고는 예언의 말을 합니다. “이제야 나는 너야말로 반드시 임금이 될 사람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다. 이스라엘 왕국은 너의 손에서 일어날 것이다.”(21절) 사울과 다윗은 각자의 길을 가게 됩니다. 더 이상의 추적은 없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사무엘이 죽자(25,1), 사울은 다시 다윗을 잡으러 나섭니다(26장). 이번에는 삼천 명의 선발된 병사들을 대동하고 와서 다윗이 숨은 곳 가까이에 진을 칩니다. 다윗은 밤의 어둠을 틈타 사울의 막사 안으로 침투합니다. 사울과 그 수하들은 무슨 일이 벌어지는지 모른 채 곤히 잠들어 있습니다. 다윗의 부하가 또다시 개입합니다. ‘기회다. 사울을 죽이자.’ 그러나 다윗은 “주님께서 주님의 기름 부음 받은 이에게 손을 대지 못하게 하셨다.”며 사울의 창과 물병을 가지고 나옵니다. 그리고 다시 사울을 불러 나오게 합니다. 그리고 외칩니다. ‘어찌하여 저를 쫓으십니까? 저를 주님 앞에서 내쫓아 다른 신들을 섬기게 하십니까? 저는 한 마리 산새나 벼룩 같은 이일 뿐입니다.’ 사울은 다윗을 해치지 않겠다는 맹세를 하고, 그에게 축복의 말을 건넵니다. “내 아들 다윗아, 복을 받아라. 너는 하고자 하는 일을 반드시 해낼 수 있을 것이다.”(26,25)

여기서 눈에 띄는 장면이 있습니다. 바로 다윗의 부하들의 목소리입니다. ‘하늘이 준 기회다. 사울을 치자.’ 그런데 다윗을 충동질하는 이 소리들은 그의 곁에 있지만, 동굴 깊숙한 곳에서(24,4), 또한 한밤중(26,7)의 사울의 막사에서 들려온 것들입니다. 그러니까 캄캄함 속에서 그 소리들이 울리고 있습니다. 다른 이를 공격하고 복수하고 갚아주자는 소리는 어둠에서 오는 것들이라는 것입니다.

다윗은 그 소리를 따르지 않습니다. ‘주님의 뜻이 아니기 때문에’ ‘주님이 원하시는 것은 다른 것이기에’, 그는 저 소리에 귀 기울이지 않았던 것입니다. 다윗은 바깥으로 나와, 곧 밝은 곳, 공개된 곳으로 나와 자신을 드러내며 ‘주님’을 찾으며 억울함을 호소합니다. 그리고 그의 행동은 오해를 풀게 하고, 자신을 공격하는 추격자의 힘을 빼버렸으며, 마침내 ‘임금의 지위’에 대한 예언과 ‘축복’의 말을 이끌어냈습니다.

우리 마음속에서도 많은 어둠의 소리들이 소란을 피웁니다. 세상의 많은 이들도 이러한 목소리를 전달합니다. ‘다시는 사람들이 너를 얹잡아 보지 않도록 강하게 나가라.’ ‘소리치는 이에게 더 큰 소리로 외쳐라.’ ‘바보냐? 왜 가만히 있느냐!’ 그럴 때, 우리는 밝은 곳, 주님께서 계신 곳, 주님께서 부르시는 곳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주님의 말씀을 듣고 그분의 뜻을 찾아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를 괴롭히는 이들이 힘을 잃습니다. 그래야 어둠의 소리가 아니라 주님의 소리를 따를 수 있습니다. 그래야, 시커먼 어둠이 이끄는 곳이 아니라 주님께서 인도하시는 좋고 훌륭한 길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 12월 영명축일을 진심으로 축하합니다.

1일	나탈리아	김성미	16일	노아	박노아
2일	비비안나	남궁현	16일	아델하이드	진윤희
3일	비앙카	허미란	25일	마누엘	김무진
4일	크리스티안	허채열 김호현	25일	엠마누엘라	허선애
6일	아셀라	김보경	25일	노엘	이동훈
8일	마리아	박순옥 이순자 이영희 홍미옥	26일	스테파노	이명원 정순문 김재원 박동윤
13일	루치아	배수현 김지희	29일	사비네	이금자
15일	크리스티아나	홍춘자			

❖ 12월 지방공동체 영명축일을 진심으로 축하합니다.

2일	비비안나	이진아(O)	25일	아나스타시아	김영숙(B)
2일	바울리나	강미향(H)	25일	노엘라	김유경(H)
13일	루치아	최예린(B) 문정자(B) 강은지(B)	26일	스테파노	문우영(H) 부종배(O) 유순식(H)
13일	오틀리아	김선우(O)	26일	스테파니	이경숙(H)
23일	빅토리아	강연희(H)	28일	돔나	김효선(H)

❖ 12월 성가번호 ❖

12월	입 당	봉 헌	성 체	파 견
4일	481	211	153	88
11일	90	219	159	89
18일	95	216	164	93
24일(토)	99	105	98	101
25일	107	102	109	101
30일(금)	114	340	166	113

❖ 12월 전례 봉사 ❖

12월	독 서	제 병 봉 헌	복 사	커피 봉사
4일	이경구(안스카) 유곡지(아그네스)	이철우(아우구스티노) 이영희(체칠리아)	*	1구역
11일	최승진(바오로) 신지혜(세실리아)	허길조(안드레아스) 허명자(가밀라)	*	2구역
18일	청년회	청년회	*	3구역
24일 (토)	사목회	사목회	*	*
25일	강신행(토마스) 이순자(마리아)	허채열(크리스티안) 허영란(엘리사벳)	*	4구역
30일 (금)	배성우(도미니코) 심은희(안 나)	이영원(베드로) 김정옥(크리스티나)	*	*

♥ 11월의 헌납금 납부자 명단입니다(협조에 감사드립니다)

❁ 자진헌납금(11월 24일 기준)

강신행, 권지연, 강신행, 김민옥, 김경미, 영희 Eggerstedt, 심동근, 우동천, 윤석순, 이정수, 정마리아, 정명옥, 최장용, 최순남

❁ 계좌 입금(11월 24일 기준)

박종래, 강일남, 김동수, 김부남, 김대현, 손수희, 김유석, 김원자, 김진호, 김치수, 남궁춘배, 배성우, 박정은, 백정선, 송문규, 육종인, 이서석, 이명원, 이공중, 이영원, 이성원, 이석우, 이경규, 정정숙, 최종금, 최성자, 허길조, 허두옥, 허채열, 허선애, 현영애, 춘옥 Zerbock, Alice Eilinghof, 옥수 Ranitzsch, Caroline Tunas

♣ 본당의 살림살이를 위해 기쁜 마음으로 봉헌해 주신 교우들께 감사드립니다.
11월 24일 자 경상비 잔액은 20.988,06유로입니다.

❖ Hamburg 공동체 소식

1. 교회의 달력으로는 새해가 시작되는 대림시기와 성탄시기에 12월에 있습니다.
2. 12월 24일 20시 만남성당 강당에서 성탄 밤미사, 12월 25일 15시 예수성심 성당에서 성탄 대축일 미사가 있습니다. ADVENIAT 2차 헌금도 있으니 미리 준비해 주십시오.
3. 12월 30일 금요일 17시 만남성당 강당에서 송년 미사와 음식 나눔이 있습니다.
4. 2023년 1월 1일 주일 15시 예수성심 성당에서 천주의 모친 성모 마리아 대축일 미사가 봉헌됩니다.

※ 새로운 자진 헌납금 계좌에 대해서

자진 헌납금 증명서(스펜덴 증명서) 서류 확인을 간소하기 위하여 함부르크 교구에서 2022년 7월 1일부터 모든 교우분들이 계좌로 자진 헌납금을 송금해 주시기를 지시하였습니다. 자진 헌납금 수입과 그 외 수입금을 구분하기 위하여 스펜덴 증명서를 교구 계좌로 송금을 해 주시는데, 수입금 관리는 우리 공동체에서 계속 합니다. 현재 공동체 계좌도 그대로 사용을 합니다.

교구 새 계좌 번호는 아래와 같습니다.

Spendenkonto des Erzbistums Hamburg

Bankinstitut: DKM Darlehnskasse Münster eG

IBAN: DE37400602650000005151

BIC: GENODEM1DKM

StichWort: Spende Koreanische Mission

앞으로 공동체 자진 헌납금은 위 계좌로 송금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StichWort: Spende Koreanische Mission을 꼭 기입해 주시길 바랍니다.

새 계좌로 자진 헌납금을 송금하신 분들은

송금 후 공동체 사목회장 한말조 (마리안나)에게 송금하신 정보를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지방공동체 소식

1. 브레멘 공동체 회장으로 조영실 마리 세실리아 자매님, 총무로 강은지 루시아 자매님이 봉사하게 되었습니다. 감사합니다.
2. 2월 브레멘 공동체 미사는 2023년 1월 28일(토)로 변경됩니다.

사 목 협 의 회		매월 첫째 주일미사 후	만남성당	회장	한말조(마리안나)
				남부회장	허채열(크리스티안)
				여부회장	
				전례부장	
				총무	박종래(바오로)
주 일 학 교		매월 셋째 일요일	만남성당	교감	최영자(파울라)
연 령 회		매월 넷째 목요일 17시30분	만남성당	회장	정정숙(아나벨)
예 비 자 교 리		통신교리 신청자	만남성당	복음화	회장 대리
레 지 오 마 리 애	믿음의 샘 Cu.	매월 둘째 화요일 저녁미사 후	만남성당	단장	김영희(클라우디아)
	자비의 모후 Pr.	매주 화요일 17시 30분	만남성당	단장	권지연(안드레아)
	평화의 모후 Pr.	매주 수요일 오전미사 후	만남성당	단장	현영애(헬레나)
	사랑의 모후 Pr. (청년)	매주 목요일 저녁미사 후	만남성당	단장	김한솔나(리드비나)
구 역		1구역	반장	최종금(로 사)	
			총무	김매자(베로니카)	
		2구역	반장	이영희(체칠리아)	
			총무	허영란(엘리사벳)	
		3구역	반장		
			총무		
		4구역	반장	이순자(마리아)	
			총무		
청년회(학생)		매월 둘째 주일미사 후	회장		
			총무		
청년회(직장)		매월 둘째 주일미사 후	회장		
			총무		
요셉, 마리아회		매월 둘째 수요일 오전미사 후	회장	조현영(로사리아)	
			총무	이정은(프란치스카)	
여성 봉사회			담당자	이정옥(크리스티나)	
				김매자(베로니카)	
				권지연(안드레아)	

일	요일	전례일	단체행사	비고
1	목			
2	금			
3	토	성 프란치스코 하비에르 사제 기념일		브레멘 미사
4	일	대림 제2주일(인권 주일) 사회 교리 주간	구역 봉사자 회의	
5	월			
6	화			
7	수	성 암브로시오 주교 학자 기념일		
8	목	한국 교회의 수호자, 원죄 없이 잉태되신 동정 마리아 대축일		
9	금			
10	토			오스나브뤼크 미사
11	일	대림 제3주일(자선 주일)	청년회 기도 모임	
12	월			
13	화	성녀 루치아 동정 순교자 기념일	꾸리아	
14	수	십자가의 성 요한 사제 학자 기념일		
15	목			
16	금			
17	토			하노버 미사
18	일	대림 제4주일	요셉,마리아회 모임	
19	월			
20	화			
21	수			
22	목		연령회 월례회	2023년 1월 연령회 : 1월 19일
23	금			
24	토	주님 성탄 성야	미사 : 20시 만남성당 강당	
25	일	주님 성탄 대축일	미사 : 15시 예수성심성당 / 사목회	
26	월	성 스테파노 첫 순교자 축일		
27	화	성 요한 사도 복음사가 축일		
28	수	죄 없는 아기 순교자들 축일		
29	목	성탄 팔일 축제 내 제5일		
30	금	예수, 마리아, 요셉의 성가정 축일 가정 성화 주간	송년 미사 : 17시 만남성당 강당	
31	토	성탄 팔일 축제 내 제7일		

❖ 함부르크 한인 천주교회 ❖

본당신부 이재혁 안드레아 아벨리니 (Jaehyuk Andreas Lee)
사목회장 한말조 마리아나 ☎ : 0157 7021 0466
주 소 Am Mariendom 5, 20099 Hamburg
Tel : 040 24 34 92
Fax : 040 24 87 44 38
홈페이지 <http://mannam.cathms.kr/>
E-mail : hhmammam@gmail.com



❖ 월 보 만 남 ❖

편 집 인 이 재 혁 안드레아 hhmammam@gmail.com
본당 신부님

* 월보 만남지는 공동체 여러분의 참여로 이루어집니다.

원고 내용은 함께 하고픈 기도, 화살기도, 묵상 글, 좋은 글, 살아가는 이야기 등입니다.
원고를 보내 주실 분은 매월 20일까지 편집인에게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분량은 A4용지
1장 정도가 적당합니다.



❖ 미 사 안 내 ❖

함부르크 한인 천주교회

본당 주일 미사 (고해성사는 미사 30분 전)

시간 : 매주 일요일 15:00

장소 : 예수 성심 성당(Herz-Jesu-Kirche)

Bei der Hammer Kirche 12, 20535 Hamburg



평일 미사

시간 : 매주 화, 목요일 19시, 수요일 오전 10시

장소 : 만남성당, Am Mariendom 5, 20099 Hamburg

지방 공동체

Bremen

시 간 : 매월 첫째 주 토요일 16시

미사장소 : St. Hedwig

Kurt-Schumacher Allee 62, 28327 Bremen

연 락 처 : 조영실(마리 세실리아), Tel : 042 135 6539

H.P : 0172 9363 190



Osnabrück

시 간 : 매월 둘째 주 토요일 17시

미사장소 : Dom-Gemeindehaus(Pernikel Mühle)

Mühlenstraße 6, 49074 Osnabrück

회 장 : 노금순(데레사), Tel : 0541 5062637

Hannover

시 간 : 매월 셋째 주 토요일 16시

미사장소 : Kirchröder Straße 12a, 30625 Hannover

연 락 처 : 김명수(마태오), H.P : 0151 29103699

